



2012년 업무계획

= 기후변화에 대응하고, 숲이 미래 희망이 되는 나라 =

2011. 12.



순서

I. 2011년 추진실적 평가	1
II. 2012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	3
III. 주요 추진과제	5
1.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가치제고	5
2.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	6
3.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·관리	7
4. 산림재해 대응 체계 확립	8
5.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	9
6. 국제기구 설립 및 해외산림투자 확대	10
IV. 과제별 주요일정	11
<참고>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	12

I. 2011년 추진실적 평가

□ 국제산림역량 강화로 국가위상 제고

-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총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 개최
 - 창원이니셔티브 채택으로 사막화방지 주도국으로 역할 확대
 - * 161개국 정부대표, 80개국 장·차관 및 국회의원 등 6,500명 참석
- 한-아세안 정상회의 시 한·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서명을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설립 기반 마련(11월)
- 양자협력회의(27개국)를 통해 녹색산림기술 수출기반 마련
-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, 탄소배출권 선점 및 국제산림협력 확대를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신설 추진

□ 산림자원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

- 산림-강-도시 지역에 국민과 함께하는 **희망의 숲** 조성
 - 개인 2만명, 119개 기업·단체가 참여하여 105개소 123ha 조림
 - * 청소년, 소외계층 등이 참여한 '오천만 국민 내나무 갖기' 캠페인 추진
- 개도국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(REDD+) 종합대책 수립, 산림탄소 상쇄제도 시범사업 추진(2개소) 등을 통해 **Post-2012대비**
- **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**를 통해 탄소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
 - 목재자급률 제고 : ('08) 10.1% → ('10) 13.5% → ('11) 15%
 - 펠릿보일러 보급 : (기존) 농가 주택 → (확대) 공공산업용 27개소

□ 산림의 미래비전 보고대회 개최

-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**'산림의 가치제고 및 건강자산으로의 활용방안'**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(3월)
 - * 후속조치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청-한국산업은행 업무협약 체결(11월)

□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복지 증진

-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 도입(7월)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
- 숲가꾸기 사업지에 산채·약용식물을 재배하는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(신규 15개소)
- 임산물재해보험 명문화 및 임산물재해복구비 단가 인상(11품목)
- 임업인의 복지 공간인 산림비전센터 매입 및 운영방안 마련(11월)

□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 강화

- DMZ 일원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「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산지관리특별법」 제정(4월)
-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을 통한 산림생물종 관리 기반 구축
- 적극적인 방제로 역대 최저 산림병해충 발생(전년대비 27% 감소)

□ 국민수요를 반영한 산림서비스 증진 및 녹색일자리 창출

- 산림치유 활성화와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·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(「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」 개정)
 - * 지리산둘레길(20만명), 장성편백 치유의 숲(13만명) 등에 국민 참여 증가
- 도시별 명품숲 추진협의체(51개 지자체 참여) 구성·운영, 국가산림경관지역(100개소) 선정 등 도시-산림의 녹색 질 제고
- 숲가꾸기 등 13개 사업에서 녹색일자리 4만5천개 창출

□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로 인명·재산 피해 발생

- 산사태예측 정보(SMS) 전달체계, 위험지 지정관리, 생활권 주변 사방시설 등 종합적인 산사태 예방체계 미흡
- 동시다발 산불(3.30 ~ 4.1까지 38건)로 인해 가옥 16채 소실
 - * 산불계도를 위한 산림헬기 운행 중 사고로 산림공무원 2명 순직(5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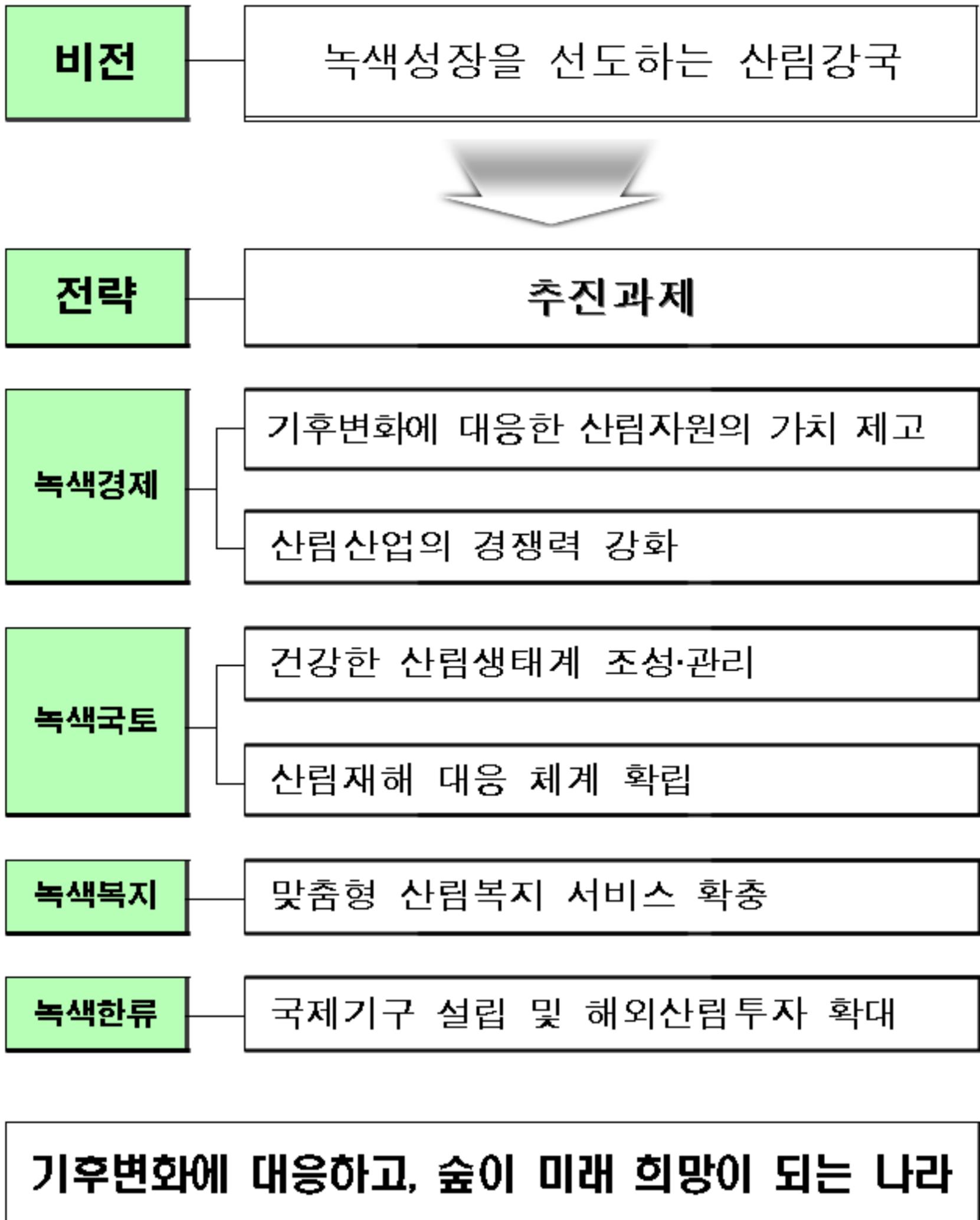
Ⅱ. 2012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

1 | 여건 전망

-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 역할 증대
 - 리우환경회의 이후 20년을 맞이하여 기후변화체제 개편 등 국제환경 이슈가 재조명
 - *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'녹색경제'를 주제로 6월 UN회의 개최
 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해결 방안으로 개도국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(REDD+)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경쟁 심화
 - * 기후변화대응 산림관련 지원(인니) : 노르웨이 5억불, 일본 2억불, 호주 3천만불
 - 생물다양성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('12.10월, 인도)에서 산림생물 자원화 및 보전 방안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

-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요구 지속
 - 주 5일 수업 정착, 건강·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의 휴양·문화 공간을 통한 다양한 체험 문화가 확산
 - * 국민 10명중 4명이 월 1회 이상 등산에 참여('10년 한국갤럽)
 - 국내·외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취약계층, 청·장년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요구 지속

-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 증가
 - 최근 대형화되는 산림재해로 인해 인명·재산 피해 증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위협
 - * '11년 300일간 지속된 미국남부 산불은 140만ha 산림 피해 발생
 - 집중호우 증가로 산림훼손 지역에 대한 산사태 피해 증가 우려



Ⅲ. 주요 추진과제

1 |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

□ 산림환경 변화를 고려한 산림자원 육성

- 양묘에서 조림, 숲가꾸기 및 벌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산림 자원 육성대책 수립
 - 경제림 육성단지 재구분을 통해 목재생산과 임업소득향상 기반 구축
 - * 신설 임도(664km)를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하여 산림경영 효율성 제고
- 금강소나무 등 지역별 중점 수종을 육성하고, 4대강 주변 및 경관·재해방지 등 환경개선 조림 추진(총 17천ha, 41백만 그루)
 - 산사태 위험지 등 재해방지조림 비중 확대 : ('11) 3% → ('12) 14%

□ 숲가꾸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경관 가치 제고

- 인공림, 우량 천연림에 숲가꾸기를 집중(250천ha)하여 우량목재 육성
- 국립공원, 야생동물 서식지 및 도시숲에 생태·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환경 숲가꾸기 가이드라인 마련
- 주요 도로변, 가시권 지역 덩굴류 제거로 산림경관 개선(26천ha)

□ 기업의 산림활동 및 녹색기술 개발 확대

- 「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」 제정으로 산림활동을 통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경감
 - 산림탄소상쇄 사업 확대 : (기존) 조림 → (확대) 산림경영, 목제품 이용
- 탄소배출권 확보 등 녹색 R&D 확대 : ('11) 587억원 → ('12) 650억원
 - 기후변화 연구·개발 로드맵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

2 |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

□ 임업인의 소득 증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

- 한-미, 한-중 FTA에 대비하여 밤, 호두 등 민감품목을 중점 지원
 - * 임산물 수출 : ('10) 154백만\$ → ('11) → 230백만\$ → ('12 목표) 250백만\$
- 산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**전문 컨설팅 제도 운영**
- 대단위산림복합단지(12개소), 산림작물생산단지(12개소), 임산물종합유통센터(8개소) 등 **임산물 생산·유통시설 확충**
- 임업 기술개발, 품질관리, 통계 등을 임업인에게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**한국임업진흥원 신설·운영(1월)**
 -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및 수출입 관리를 위한 HSK코드 신설(1월)

□ 목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목재산업 육성

- 국산재 목재수급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목재산업 진흥 5개년 종합대책(2012 ~ 2016) 추진**
 - * 체계적인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
- 고부가가치 목제품 생산을 위한 **목재 가공유통 시설 확충(2개소)**

□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

- 목재펠릿을 **연중·대량 소비**할 수 있도록 **수요 다변화**
 - (기존) 농가주택, 주민편의시설 → (확대) 산업용, 지역 난방시설
 - * 산업용, 지역난방시설 펠릿소비량은 연 500 ~ 2,000톤/대(가정용 3 ~ 4톤/대)
 -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은 펠릿보일러만 보급
- 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**목재산업 원자재**로 제공
 -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 : ('11) 130만 m³ → ('12) 150만 m³
 - 목재생산성 향상을 위한 벌채 설계·감리제도 시범운영(400ha)

3 |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·관리

□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원화

- **산림생물다양성 보전·관리를 위한 기본계획(2013~2017) 수립**
- **기후권역별 국립수목원 조성으로 산림생물 종 다양성 확보**
 - *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착공('09~'14, 봉화), 국립세종수목원('12~'16, 세종시) 추진 T/F팀 구성·운영, DMZ 자생식물원 조성('09~'13, 양구)
- **산림습원 등을 대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(5천ha)**
 - 소광리, 민북지역에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생태관리센터 신축
 -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산림생물종 서식지 관리 모델사업 추진

□ 백두대간, DMZ 일원 산림 관리 강화

- **백두대간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정맥관리방안 마련**
- **DMZ 일원 산지 보전·이용을 위한 민북지역산지관리단 설립**
 - * 「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」 시행(4월)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
- **백두대간 마루금 연결 및 DMZ 일원 훼손지 생태적 복원**

□ 산지의 보전·이용 체계 확립 및 국유림 관리 강화

- **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(2013~2017) 수립을 통해 산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입지 체계 구축**
- **산지의 생태적인 이용과 경관 보존을 위한 산지제도 정비**
 - 산림복지시설 입지, 재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지역에 대한 생태·환경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 마련
 - * 평창동계올림픽 중봉스키활강장의 자연친화적인 조성 및 산림복원 방안 마련
 - 백두대간 등 산림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송전탑 설치시 **산림경관영향평가제도** 시행
- **사유림 매수를 통한 산림의 경제·공익적 가치 제고(11천ha)**
- **장기 대부·사용허가 및 무단점유된 국유림 정리로 국민불편 해소**

□ 산사태 방재 대책 현실화

-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·보급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지를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·개편(12월)
 - 토석류 위험지도 : ('11) 3개소(인제·평창·봉화) → ('12) 전국 확대
 - * 지자체, 전문가, 주민 등이 참여하는 산사태 위험지 지정·관리 협의체 구성운영
- 사방댐(695개)과 산림내 계곡정비사업(416km) 등 사방사업을 도시·생활권 지역에 집중
 - *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매수교환 및 수용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활동 강화

□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

- (예방) 산불감시인력 2만5천명 운영, 소각금지기간 운영, 감시카메라 장비 확충 및 우편집배원(14천명) 등을 활용한 현장 홍보
- (진화) 진화헬기 143대(산림청 47대, 임차·유관기관 96대), 산불전문진화대(1만명) 및 영상전송시스템 도입으로 조기진화 추진

□ 산림병해충 특별관리 및 생활권 수목피해 저감

- 리·동단위로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세부이력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에서 방제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 실시
 - 대면적 항공방제는 축소하고, 천적 등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 확대
 - 참나무시들음병 총력방제 : ('11) 55억원 → ('12) 87억원
-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기준 및 진단·진료 체계 구축
 -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 : ('11) 1천건 → ('12) 4천건
 - 지역별 수목진료를 지원하는 수목진단센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(13개소)

5 |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

□ 산림휴양시설 확대 및 산림교육 강화

- 자연휴양림을 확충(21개소)하고,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기회 제공
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(7월)과 연계하여 유아숲체험원 확대 및 학교 내 산림교육 강화
- 등산관련 교육·체험 등 복합휴양공간인 산악박물관 착공(10월)

□ 숲을 치유와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

- 생활권 주변 산림에 치유의 숲 조성을 확대(8개소)하고, 장기체류형 산림치유공간인 백두대간테라피단지 착공(9월)
 - 전문기관을 통해 양성된 산림치유지도사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
- 명산 둘레길 및 생활권 주변에 숲길 조성을 확대(360km)하고, 숲길체험지도사를 통해 쾌적한 산행문화 유도

□ 도심 생활권 녹색여가 공간 조성

- 도시숲(193개소), 가로수(468km), 학교숲(145개교) 조성을 확대하고, 도시주변 산림과 연계한 녹색네트워크 구축
 - 모범 도시숲 인증, 전문인력 양성 등 도시숲 관리 체계 확립
- 지역내 향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도시숲 조성사업을 연계

□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

- 숲가꾸기, 숲해설가, 숲길안내인 등 13개 사업에 4만4천명 고용
- 취약계층, 청·장년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일자리 제공
 - 일자리 중 일부를 취업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
 - 젊은 임업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 특성화고 설립(한국산림과학고)

6 | 국제기구 설립 및 해외산림투자 확대

□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설립 등 국제산림협력 강화

- (아세안) AFoCO 사무국 설치(4월, 서울) 및 제1차 총회 개최
 - 동아시아 중심의 산림협력 사업을 중앙아시아 등 제3국으로 확대 (사업규모 : '11년 130만불 → '12년 200만불)
- (동북아시아) 몽골, 중국과 사막화 및 황사 방지 등을 위한 동북아 황사방지 네트워크 운영('12~'16, 700만불)
- (아프리카) 유엔환경계획과 건조지녹색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
 - 황폐산림복원을 위한 산림녹화 기술 전파 및 시범사업 추진
- (북한) 황폐산림복구를 위한 종자확보 및 양묘장 지정·운영

□ 산업조림, REDD+ 등 해외투자 및 양자협력 확대

- 목재자원 확보,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해외조림 확대(25천ha)
 - 국내 목재산업 원자재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목 도입(10만m³)
 - 인니, 미얀마 등 아세안에서 개도국 산림전용방지 및 산림경영(REDD+)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추진
 - * 산림탄소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상품 및 방법론 개발
- 탄소배출권 확보가 용이한 중남미, 산림녹화가 필요한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양자협력국가 확대 : ('11) 12개국 → ('12) 20개국
 - * 신규체결 국가(안) : 칠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에디오피아, 베냉, 르완다 등

□ 유엔사막화방지협약(UNCCD) 의장국 역할 이행

-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(Rio+20)에서 UNCCD 총회 논의 과제 이행강화를 위한 UN 환경협약간 협력방안 제시
-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조치 이행을 통한 사막화 문제해결 선도

IV. 과제별 주요일정

	실 천 과 제	일정
상반기	◦ 한국임업진흥원 개원	1월
	◦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사업 추진T/F팀 구성	1월
	◦ 생활권 수목방제 기준 제정	2월
	◦ 벌채 설계·감리제도 마련	2월
	◦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의장단 회의 개최	2월
	◦ 산림자원 육성대책 수립	3월
	◦ 봄철 나무심기	3~4월
	◦ 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	2~5월
	◦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시행	4월
	◦ 산림비전센터 개관	4월
	◦ 아시아산림협력기구(AFoCO) 사무국 개소	4월
	◦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착공식	4월
	◦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착공식	4월
	◦ 산사태정보시스템 모의훈련 실시	5월
	◦ 동북아 DLDD 방지 국제포럼 개최	6월
	◦ 2011년 수해피해 복구사업 완료	6월
	◦ 자연환경 숲가꾸기 가이드라인 마련	6월
	◦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 상황관리	5~10월
하반기	◦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	7월
	◦ 국유재산 특례 제도 운영	7월
	◦ 도시숲 포럼 창설	8월
	◦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	8~10월
	◦ 가을철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기간 운영	9~11월
	◦ 사유림 경영 컨설팅 활성화 방안 마련	9월
	◦ 산양삼 품질규격·등급기준·성분분석 마련	9월
	◦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기공식	10월
	◦ 산지관리기본계획 마련 및 부처협의	10월
	◦ 백두대간 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재 타당성 조사	11월
	◦ 토석류 위험지도 제작 및 전국 배부	11월
	◦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수립	12월
	◦ 임도 품질향상을 위한 표준시방서 마련	12월
	◦ 민북지역산지관리단 구성	12월
	◦ 가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	11~12월

[참고] 2011년 업무계획 추진실적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□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		
가.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봄철 나무심기 추진(3 ~ 4월) ○ 67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(4월) ○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(7 ~ 9월) 	정상추진
나.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경제적·환경적 가치 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별 숲가꾸기 발대식(1월) ○ 숲가꾸기 현장점검단 운영(6월) ○ 현장토론회 등 숲가꾸기 기간 행사(11월) 	정상추진
다.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경관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산림경관벨트 시범사업 추진(3월) ○ 덩굴류 제거 등 산림경관 정비(6 ~ 9월) 	정상추진
□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		
가. 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국산재 시대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재수급계획 시달(2월) ○ 친환경 벌채제도 모니터링(4월) ○ 숲가꾸기 산물수집 130만 m³ 완료(12월) 	정상추진
나.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 시행(1월) ○ 목재펠릿 보일러 실태조사(9 ~ 10월) ○ 목재펠릿 보일러 인증제 도입(9월) 	정상추진
다.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양삼 품질표시 제도 도입(9월) ○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점검(12월) 	정상추진
□ 생애주기 산림복지 실현		
가. 숲을 치유와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기체류형 자연휴양림 시범운영 추진(4월) ○ 백두대간테라피 발전촉진지구 지정(12월) ○ 트레킹길 조성 278km 완료(12월) 	정상추진
나. 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복지 공간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세안산림휴양단지 기본계획 수립(11월) ○ 도시숲·학교숲 338개소 조성(12월) 	정상추진
다. 산림서비스 등 녹색 일자리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자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(1월) 	정상추진

업 무 계 획	이 행 실 적	이행상황
	○ 일자리참여자 만족도 조사(4 ~ 5월)	
□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		
가. 산림재해 유형별 저감 대책 강구	○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(2.1 ~ 5.15, 11.1 ~ 12.15) ○ 여름철 풍수해 예방복구대책 수립(5 ~ 10월) ○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(6 ~ 8월) ○ 산사태 방재대책 수립(8월)	정상추진
나. 산림생물다양성 보전·관리 강화	○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(3월) ○ 민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제정(4월) ○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(9월) ○ '11년 수목원·생태숲 조성 완료(11월)	정상추진
다.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제도 도입	○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운영지침 및 매뉴얼 작성(6월) ○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시행(7월) ○ 대규모산지전용 허가기준(안) 마련(7월)	정상추진
□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		
가.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및 자원외교 다변화	○ 캄보디아 조림지 투자환경조사(5월) ○ 한-파라과이 우호림 준공(6월) ○ 러시아(6월), 캄보디아(8월) 해외산림투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○ 해외조림지 현장 지도·점검(9월)	정상추진
나. 국제산림협력을 주도 하여 국가위상 강화	○ 사막화방지의 날 기념 국제심포지엄 개최(6월) ○ 한-인니 산림협력센터 개소(7월) ○ UN총회 고위급 회담 참석(9월) ○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(10월) ○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외교장관 서명(11월)	정상추진